

1250 금강행자 배출... 지장 도량 복원 '서원'

'변화의 중심' 전등사를 주목한다- ②신행 도량으로서의 변모

“여시아문 일시 불 재사위국 기습고독 원...” <금강경> 범회인류부의 경구가 법당 안에 울린다. 하얀 석가모니 주불과 4명의 협시보살이 높길 가는 법당에서 100여 명의 사부대중은 <금강경>을 외우고 또 외웠다.

주지 스님부터 신도까지 모든 사부대중이 모여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다.

전등사는 지난 10월 23일 경내 무설전을 개최하고 '금강경' 독송 3년 정진 기도'를 입재했다. 처음 100명이 안됐던 등 록 인원은 한달 여가 지난 지금 250여 명을 훌쩍 넘겼고,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합동 기도 범회에도 평균 10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다.

다소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전등사에 있어서는 큰 변화다.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인천·강화 지역에서 그것도 연인원 4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사찰인 전등사에 이 같은 변화는 신행도량으로서의 초석을 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등사가 무설전을 개최한 것도 신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방편이었다. 일반적인 전각이 아닌 석굴 형식으로 조성된 무설전은 단순 예배 공간만이 아

니라 강좌, 전시회, 공연 등 다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한국 정상급 미술가들이 참여해 불사를 진행한 것도 큰 특징이다.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4대 협시불, 1천 원불은 김영원 홍익대 교수가 제작을 맡았으며, 오원배 동국대 교수는 후불탱과 신중탱을 그렸다. 특히 후불탱은 국내 최초로 프레스코 기법을 활용해 부처님 세계를 형상화했다. 무설전 공간 디자인은 이정교 홍익대 교수가 맡아 출입구부터 연등 디자인, 불단까지 섬세하면서 품위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은 개원범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석굴암도 조성 당시에는 시대를 담아낸 미술이었다”며 “21세기 가. 무설은 21세기 미술을 창출할 의무가 있다. 무설전이 부처님의 법음과 오늘의 예술이 함께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설전 개원과 동시에 시작한 '금강경' 독송 3년 정진 기도'는 전등사를 신행도량으로 이끌 원동력이다. '금강경 3년 독송기도법회'는 강의와 기도가 함께 진행되는 일반 신도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전을 수지 독송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신행활동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약 5분 간 독송할 수 있는

<금강경 약본>을 제작해 기도 동참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금강경 독송은 근기에 따라 108독, 1000독, 3000독, 10000독을 권하고 있다. 이번 독송기도도 40만 관광객이 아니라 100만 행자가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년 결사를 마치면 <금강경> 설법을 듣고 깨달은

무설전 개원... 신행도량 추구
금강경 독송 3년 정진 들어가
근기 맞는 신행 조직도 구성
명부전 지장상 등 보물 지정
복장 불사·1000일 기도 정진

1250비구와 같이 1250명의 금강행자를 배출시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회 참여 신도들이 자신에게 맞는 실천 분야를 정해 이에 따른 신행 조직에 들어가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실제 전등사는 >지계제일 우바리(계행실천) >민행제일 나홀라(봉사 조직) >다문제일 아난(선구 계승 암송) 등 10개 신행 조직 구성을 계획 중이다.



전등사는 무설전 개원과 동시에 금강경 독송 3년 기도정진을 입재했다. 관광사찰에서 신행도량으로 변화하는 전등사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지난 10월 23일 문을 연 무설전 협시 보살의 모습. 무설전은 범회 뿐만 아니라 강연, 전시회, 공연 등을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일 수보리(금강경 1만 독경) >포교제일 부루나(금강행자 모연) >논의제일 가전연(사회적 이슈 토론) >천안제일 아나올(금강경 사경 108번) >지계제일 우바리(계행실천) >민행제일 나홀라(봉사 조직) >다문제일 아난(선구 계승 암송) 등 10개 신행 조직 구성을 계획 중이다.

이에 대해 범우 스님은 “교리를 배웠으면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0개의 신행 조직은 자신의 근기에 맞는 실천 방안을 찾는 맞춤형 신행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등사는 명부전 지장삼존상

과 시왕상 보물 지정을 기념해 복장불사와 지장 1000일 기도에 들어간다. 지장 1000일 기도는 100일 기도가 끝날 때마다 천도재를 봉행하며 입재 후에도 수시로 기도접수가 가능하다. 기도는 내년 2월 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범우 스님은 “전등사는 예로부터 지장도량으로 불리며 명부전의 영험함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번 국가보물 지정과 1000일 기도로 철원 심원사, 고창 도솔암, 완주 송광사, 서산 개심사 등과 함께 5대 지장도량으로서 명성을 되찾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등사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문수기도(학업성취기도)를, 넷째 주 화요일에는 보현기도(사업성취기도)를 진행하며 무설전 원불인 헌경전불 재일 기도도 매월 음력 14일에 이뤄진다.

신행도량으로서의 변화에 대해 범우 스님은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해야 한다”며 “금강경 3년 정진과 신행 조직을 활성화시켜 수도권 서부를 담당하는 신행도량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글= 신종일 기자 · 사진= 박재원 기자

명상으로 청소년 심성 순화한다

포교원, 금강선원·명상상담연구원과 협약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 중앙)과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오른쪽), 명상상담연구원 인목 스님(왼쪽)이 협약식에서 밝게 웃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 명상프로그램을 본격 전개해 청소년 심성 순화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은 11월 21일 포교원장실에서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협약식'을 열고 금강선원(선원장 혜거),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과 청소년 명상프로그램 자문위원 위촉 및 프로그램

협약식을 개최했다. 금강선원은 '10분 집중명상법' 프로그램, 명상상담연구원은 '아하! 청소년 명상 캠프'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포교원은 이들 단체의 프로그램을 중단 차원에서 활용하게 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올 겨울방학부

터 파라미터와 연계해 10분 집중명상과 청소년 명상캠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분 집중명상법'은 금강선원 혜거 스님이 2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최초 1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15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집중력을 향상토록하는 반복훈련 프로그램이다. 10분 집중명상법은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는 명상상담연구원 인경 스님이 2011년부터 3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걷기, 먹기 등의 오감 명상과 함께 그룹 및 개인상담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위원으로 위촉한 혜거, 인경, 용타, 미산 스님과 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일선종단 일귀는 프로그램을 포교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장님들! 조계사로 참선하러 오세요”

조계사 선림원, 불교지도자과정 수행자 모집

도심에서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참선전문 대학원인 '조계사 선림원'이 3기 입학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12월 1~14일 조계사 불교대학 1층 선림원에서 진행한다. 입학 희망자는 소정 양식의 입학원서와 반명함판 사진, 자기소개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조계사 선림원은 2년 4학기 과정으로 전문경영인 및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체계적인 참선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각 학기마다 불교와 선, 선의 원리와 역사, 경전 아록연구, 선과 사회 등의 전문적인 선불교 이론 공부와 제방 선원장 스님에 의한 실참 수행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 한 달에 1회 이상 제방 방장·조실 스님과 최광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 선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 또한 방학 중에는 참선 입문 프로그램과 전통 선원 탐방 및 중국선종 사찰 순례, 미얀마 등의 세계 주요 명상센터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선

림원은 증명법사로 고우(원로의원)·설정(수덕사 방장)·적명(봉암사 수좌) 스님을 추대하고, 영진(백담사 선원 유나)·원타(봉암사 주지)·철산(대승사 선원장)·일수(법천사 선원장)·월암(한산사 선원장)·도문(조계사 주지)·진화(봉은사 주지) 스님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해 지도체제를 갖췄다. 지도교수로는 교학처장인 김중인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중핵교과)를 비롯해 중효 스님(현 조계종 문화부 차장),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변희욱 연구원(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 연구원), 조준호 전임연구원(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이 구성됐다.

한편 선림원은 11월 28일부터 석 달 동안 매 재가자 1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자율 정진에 들어간다. 이어 12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겨울 토요 철야 참선 프로그램 '동치미 먹어갈 때, 달에 앉아 졸다'를 무료로 진행한다. (02)732-2183 이나은 기자

불레협, 지도자 강습회

12월 1일 50회 축하마당도

학교 및 법회 등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를 위한 강습회가 열린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는 12월 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제50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연기자(공연자)가 패널(보드)앞에 서서 그림인형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연극인 '패널시어터' 활용 및 실재를 비롯해 '벗다 콘서트' '50회 축하 및 어울림 마당'으로 구성됐다.

도경 스님은 “어린이 법회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매년 2회씩 개최한 이래 강습회가 이번 겨울로 제50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포교와 전법의 길을 묵묵히 개척한 지도자 강습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심인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모집

▶ 밀교사상과 수행 (密敎思想·修行) ◀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일반불자, 승려(비구, 비구니) 법사
 강 의 : 매주 일요일 12시 ~ 1시 30분 <점심공양>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법복착용>, 필기도구는 제공
 등록금 : 100,000원 / 교재비 : 30,000원

▶ 공부할 과목 ◀ 지도법사: 범운(法雲)스님

- ❑ 근본불교: 비밀불교의 기본사상(秘密佛敎의 基本思想)
- ❑ 밀교란: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 ❑ 밀교의 삼대사상: ❶ 육대(六大) = 체(體): 地, 水, 火, 風, 空, 識
 ❷ 사만(四曼) = 상(相): ❶ 대만다라(大曼荼羅) ❷ 법만다라(法曼荼羅)
 ❸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 ❹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
- ❸ 삼밀(三密) = 용(用): 심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
- ❑ 밀교의 만다라: ❶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❷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 ❑ 밀교의 삼륜신: ❶ 자성륜신(自性輪身) ❷ 정법륜신(正法輪身) ❸ 교령륜신(敎令輪身)
- ❑ 현교의 삼신불: ❶ 법신(法身) <비로자나> ❷ 보신(報身) <노사나> ❸ 화신(化身) <석가모니불>
- ❑ 위빠사나 수행법, 탄트라와 명상법
- ❑ 육자진언염송 <올마니반메출>
- ❑ 현교와 밀교성본론의 차이점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031)692-3653, 011-9356-3653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